

'8K 탈삼진 쇼' 올리 "준비는 끝났다"

KIA, 마지막 시범경기 삼선전 2대1

최고 154km 패스트볼 앞세워 4이닝 무실점 호투...최종 점점 '이상무' 불펜 무실점 릴레이·김도영 2안타 활약·수호신 정해영 '깔끔 마무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야담 올라가 시범경기 마지막 등판에서 호투를 펼치며 정규시즌을 앞둔 최종 점점을 마쳤다.

올리는 24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3사구 8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시범경기 세 번째 등판에서 첫 승도 함께 챙겼다.

최고 시속 154km 패스트볼을 중심으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고르게 활용했고, 총 8구를 던졌다. 매 이닝 삼진을 잡아낸 점이 돋보였다.

지난 17일 NC전(2%이닝 3피안타 5볼넷 5탈삼진 2실점 1자책)보다 제구와 운영 모두 안정된 모습이었다.

1회는 삼진 2개를 곁들여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출발했다.

2회 들어 다소 흔들렸다. 선두타자 볼

넷 이후 최형우를 삼진으로 잡았지만 2루타와 볼넷이 이어지며 2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마지막 타자를 슬라이더로 삼진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정리했다.

3회 역시 2사 1·2루 상황을 땅볼로 넘겼고, 4회는 삼진과 볼타로 세 타자를 돌려세우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올리는 지난해 팀 내 유일한 10승대 투수다. 올 시즌도 '에이스' 네일과 함께 원투펀치로 마운드를 이끈다.

경기 운영의 기복을 줄이고 이닝 소화력을 끌어올린다면 리그 정상급 외국인 투수로 도약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의 활약은 KIA 선발진의 안정감을 떠받치는 한 축이다.

경기에선 KIA가 2-1로 승리했다.

불펜진이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다. 조상우, 김범수, 전상현이 무실점으로 이어 던졌고, 성영탁이 1실점으로 버텼다.

정해영은 9회를 깔끔하게 막아 승리를 매듭지



24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호투를 펼친 올라가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덕아웃으로 들어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었다. 타선에선 총 7안타가 나온 가운데 김도영이 3타수 2안타로 공격을 이끌었다. KIA는 1회 1사 2·3루에서 땅볼 타구 때 상대

홀 송수를 틈타 김호령이 홈을 파고들며 선취점을 올렸다. 4회에는 1사 1·3루에서 이창진의 적시타로 한 점을 추가했다. 7회 2사 이후 3연속 안타로 1점을 허용했지만,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시범경기를 4승 6패 2무로 마친 KIA는 오는 28일 SSG와의 문학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2026시즌에 돌입한다. /주홍철 기자

사령탑·대표 선수 총출동...팬과 함께하는 미디어데이

내일 오후 2시 잠실롯데월드



2026 시즌 프로야구의 시작을 알리는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28일 오후 2시 잠실롯데월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박해민, 임찬규(LG), 채은성, 문현빈(한화), 오태근, 조병현(SSG), 구자욱, 강민호(삼성), N박민우, 김주원(NC), 장성우, 안현민(KT), 전준우, 전민재(롯데), 나성

범, 양현종(KIA), 양의지, 박민(두산), 임지열, 하영민(키움)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나만의 야구 키팅 만들기', '우리 구단 팬심표징 어필', '시즌 버프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니다.

또한 CJ온스타일과 협업한 10개 구단 굿즈를 4월 공식 출시 전 현장에서 선공개한다. 미디어데이 현장에는 캐비닛이 포함된 덕아웃 컨셉의 포토존을 마련해 팬들이 협업 굿즈를 먼저 체험하고 이를 활용해 사

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BO X CJ 온스타일'의 야구 콘셉트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네임스티커 프린터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공식 행사에 앞서 지정 좌석 입장권을 소지한 팬 20명을 대상으로 10개 구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사인회가 개최된다. 사인은 미디어데이 입장권 신청 시 선택한 1개 구단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10개 구단 감독들의 출사표와 인터뷰, 2부에선 선수들의 소감과 인터뷰로 진행된다.

/박희중 기자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훈련장 찾아 선수단 격려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힘찬 도약 응원합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훈련장 찾아 선수단 격려

광주은행 비츠로 배드민턴팀이 2026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24일 광주시체육회관 배드민턴 훈련장을 직접 찾아 훈련에 여념이 없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우리 지역 우수선수들이 지역의 명예를 빛내고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며 "배드민턴 꿈나무 육성에도 노력해줘서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지역 기업인 광주은행이 지역체육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져준 데 감사하고 동반 성장하는 모범적인 스포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고

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비츠로 배드민턴팀은 지난 15·22일 정읍시에서 열린 '2026 전국연맹총회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일반부 복식에서 조송현·진성익(2026 국가대표)조, 단식에 출전한 김대환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며 기본 좋은 출발을 알렸다.

광주은행 비츠로 배드민턴팀은 주종목 복식에 이어 약점으로 꼽혔던 단식에서도 올 시즌 첫 메달을 획득하며 올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이들은 오는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 메달을 목표로 국내·국제대회에서 활약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2017년에 창단한 광주은행 비츠로 배드민턴 선수단은 지역 출신 홍지훈 감독을 필두로 박

문선(30), 김명철(29), 김대환(25), 진성익(24), 윤보(24), 조송현(23), 신수현(22), 양병건(21)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복식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재능기부를 비롯해 지역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배드민턴 경기력 향상과 지역 체육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6 국가대표로 선발된 조송현·진성익 조는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2026 베트남 국제셀린지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혼합복식에 참가해 지역은 물론 한국을 빛낼 계획이다.

홍지훈 감독은 "젊은 패기와 열정이 우리 팀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이다. 꾸준한 훈련으로 지난해부터 복식과 단식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기세를 이어 국내 대회는 물론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표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 우수 김민수, AG 티켓 획득

"항저우銅아쉬움 이번엔 금빛으로"...장민규, 2년 연속 태극마크

전남 우수 김민수(전남도청)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민수는 지난 23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수 산타 60kg급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해남에서 열린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 대표팀에 합류한 김민수는 이번 최종 선발전 준결승에서 권혁(서울시실업)을 2대0으로 제압한 뒤 결승에서는 강희준(충북 비룡관)을 2대1로 꺾고 당당히 1위에 오르며 아시안게임 '금빛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김민수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의 아쉬움을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는 반드시 금메달로 만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태극권 전능에 출전한 장민규(전남도청)는 최종선발전에서 안현기(충북개발공사)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장민규는 오는 4월 초 김민수와 함께 인천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인 국가대표 훈련에 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수 산타 60kg급 출전 티켓을 거머쥔 김민수 경기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입할 예정이다.

윤병용 전남우수협회장은 "전남 우수 역사상 투로와 산타 선수가 동시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전남 우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있는 성과를 넘어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전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청 역도팀 손현호·안시성 춘계남녀역도 2관왕 바벨 '번쩍'

광주시청 역도팀 손현호와 안시성이 2026 전국춘계남녀역도대회 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관왕에 오르며 태극마크에 청신호를 켜다.

손현호는 지난 20일 충남 서천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70kg급에서 인상 2위(150kg), 용상 1위(187kg), 합계 1위(337kg)를 기록하며 합계 333kg(인상 153kg·용상 180kg)의 박주현(고양시청)을 제치고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여자일반부 61kg급에 출전한 안시성은 인상 2위(93kg), 용상 1위(115kg), 합계 1위(208kg)를 들어올리며 합계 208kg의 한지안(부산시체육회)을 따돌리며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대학부에서도 메달 획득이 이어졌다. 여자대학부 49kg급 노세림(조선대 2년)이 인상 50kg, 용상 72kg, 합계 127kg으로 1위를 차지했고, 김민정(조선대 1년)은 57kg급에서 인상 68kg, 용상 90kg, 합계 158kg으로 금메달을 목에



2026 전국춘계남녀역도대회 2관왕 손현호와 안시성

걸었다. 신휘원(조선대 2년)도 67kg급에서 인상 65kg, 용상 85kg, 합계 150kg으로 정상에 올랐다.

남대부에서는 주세운(조선이공대 1년)이 65kg급에서 인상 93kg, 용상 130kg, 합계 223kg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전국경(조선이공대 1년)도 70kg급에서 인상 101kg, 용상 131kg, 합계 232kg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박희중 기자